

로동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3호 [주체 제25416호] 주체 105(2016)년 9월 29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라오스공위정년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연해변강행정장관이 선물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연해변강행정장관이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선물을 우리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뚜니지준비위원회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뚜니지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뚜니지조선헌선협회 서기장 장필라 역 제르시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께

경쟁하는 각하 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각하께 이 편지를 올리지 뭘을 기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단체와 국제기구들의 성의있는 노력과 협조로 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는 인류공동의 진보와 번영을 도모하고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자기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람회기간 첨단과학기술과품이 넘쳐 소개되고 기후변화문제에 비추어 현시대가 절실한 요구하는 과학기술문제들에 대한 경철교환과 토론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나설것입니다. 우리들은 방문기간 귀국정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국제적인 관심과 협조속에 조선의 근대와 인민이 최근 북부지역에서의 큰물피해복구사업에 한걸음이 펼쳐 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경쟁하는 각하 어린이들의 꿈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비상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전민이 학습하는 활력있는 장소로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전람회는 각하께서 지니신 비범한 통찰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 해주었습니다. 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참가자일동 2016년 9월 28일 평 양

조선로동당창건 71돐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곧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역사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사상을 지도적정령으로 하여 승리만을 펼쳐 온 불멸의 혁명정당이다. 높은 우뚝되고 나아가는 우리모 두에게 기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 주었다.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의 혁명한 령도하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앙골라 프다 노르메주 부장관

일심단결의 위력 만방에 떨치며 주체조선의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자

북부전선에서 보내온 소식 100세대 살림집내외부미장공사 마감단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큰물피해지역인 경흥군에 급파되어 조선인민군 리원시소속부대 군인들이 읍지구 살림집건설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경흥군에 사회주의건설을 입매세울 미상한 각오를 안고 읍지구 살림집건설현장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부대군인들이 폭풍처럼, 화악에 불이 달린것처럼 단숨에의 기상으로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28일현재 100세대 살림집건설내외부미장전투가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위력을 계속 떨치며 대고조진군의 골짜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부대지휘부에서는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이제 당장 들어다

원산항과 함경북도의 립산, 갯목생산사업소들에서

시간의 청년들도 야간졸업자를 찾고 현장에 달려나와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신력의 강자, 창조적 기인들의 전유적기일과 본태를 감당함에 과시하였다. 원산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의 일꾼들과 로동자들도 하루생산 전투가 끝난 후 향으로 달려나가 북부피해복구전투장에 더 많은 세멘트를 실어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다. 수송실적이자 피해복구성과 관련한 자각을 안고 떨쳐나선 원산항원력을 비롯한 원산항도본국의 일꾼들과 수송전선에서도 수송조치와 지휘를 짜고들어 활력있는 세멘트수송파제를 제때에 유통히 수행하였다. 도안의 일꾼들과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세멘트생산은 때를 뛰어넘어 출항의 고도를 올려며 북부전선으로 떠나가고있다. 북과기자 신 천 일

화학제품생산성과 계속 확대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합복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용력을 집중함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들고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비날론을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에서 혁신의 불길 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 생산설비와 계통을 제때에 정비하고 수하고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조매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주체비료와 비날론, 기초화학제품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만리마를 탄 기차로 계속 질풍같이 내달려 비날론과 염화비닐, 가정소다생산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련합기업소의 일꾼들은 언제나 어려운 모퉁이마다 남먼저 어깨를 붙이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현장에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기있게 해나갔으며 과학기술로 중심의 물과구를 열어 제끼기 위한 투쟁의 열정에 서서 로동자, 기술자들의 이끌어 나갔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진들은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해 실험실과 생산현장에서 밤을 밝히며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갔다. 기술자, 로동자들은 당간호에 의한 합성촉매용 초산방향을 생산에 받아들여 질풍은 초산을 생산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던 촉매를 국산화하고 생산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환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로고와 심혈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떠맡아 주었다. 도당위원회 각 부서 일꾼들은 련합기업소의 현재 직장의 담고 내려가 책임적정지사업을 드세게 밀리면서 중심의 방도도 함께 찾아나갔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생산실의것 풀이주어 생산적양질의 불길이 세차게 떠오르게 하였다. 수령방사지장을 담당한 해당 부서에서는 생산실상황에 걸맞은 필요한 펌프와, 저탄소용접 봉 용을 제때에 해결해주어 비

합경북도의 립산, 갯목생산사업소들에서

원산항과 함경북도의 립산, 갯목생산사업소들에서 원화위부의 조직적소를 받들고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들도 하루생산 전투가 끝난 후 향으로 달려나가 북부피해복구전투장에 더 많은 세멘트를 실어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다. 수송실적이자 피해복구성과 관련한 자각을 안고 떨쳐나선 원산항원력을 비롯한 원산항도본국의 일꾼들과 수송전선에서도 수송조치와 지휘를 짜고들어 활력있는 세멘트수송파제를 제때에 유통히 수행하였다. 도안의 일꾼들과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세멘트생산은 때를 뛰어넘어 출항의 고도를 올려며 북부전선으로 떠나가고있다. 북과기자 신 천 일



바동전선으로 앞세우며 화학제품생산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북과기자 김 중훈, 정운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로동신문》 9월 26일부터 실린 정론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에 대한 각계층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다.

《백사상 그 어느 당과 인민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과도 협박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는 과정에 우리 당은 자기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에 대하여 깊이 확신하게 되었으며 당을 따라 영령히 주체의 관철로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각오와 의지는 더욱 굳어졌습니디다.》

지난 9월 26일부터 《로동신문》에 실린 정론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는 위대한 당의 철통같이 세기를 이어오는 주체혁명위업의 필승불패성과 천만군민의 운명의 태양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공로를 전신하에 보여

줌으로써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을 배태해주고 있으며 우리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정론은 또한 우리의 위업을 달성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꾀변의 반동성을 날날이 까발리고 정로도 승리도 우리에게 있다는 철리를 밝힌것으로 하여 적대세력에게 들뜨게하는 위대한 굴복판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전파위부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이 현재 벌어지고있는 때에 나온 정론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는 지금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거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는 우리 조국의 강국의 위용과 기상을 어찌나 방불하게, 그러면서도 비늘붙어갈 구멍도 없이 제인 논리로 소리를 구가하였는지 한문장, 한문장을 무심히 볼수가 없었다.

정말이요 승리는 언제나 조선의 것이었고 승리는 언제나 제국주의의 것이었다.

합일의 그날 일제를 통해 하게 라승한것도, 3년간의 전쟁에서 거머쥐고 제국주의의 종국적 멸망을 겪을것을 통해하게 선언 하였었다.

당보에서 정말 시기적절할 때에 가슴후련한 갈대보를 쓰았다. 200일전투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에게 수천의 식량에도 미할수 없는 위대한 사상정신적 양식을 안겨준 당보집판에 우리 동지대원들의 활달한 마음을 담아서 열렬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의 승리는 언제나 원수님께서 계시는 조국 땅 북녘에서로 반드시 전파위부의 세 기적이 펼쳐나고야마겠는 두철한 신념을 간직하고 맑은 공사에서 헌신 위훈을 펼쳐나갔다.

대외간섭지도자 운동자 양을은 지난 9월 26일 《로동신문》 2면에 실린 정론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를 읽고 격조있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정론을 읽는 순간부터 투쟁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원수들의 악랄한 도전을 헤쳐가 왔는지, 하지만 어떤 력사의 도전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명도는 곧 조선의 승리라는 불변의 진리, 우리모두가 미치고 싶었던 진리의 교배를 가슴후련히 대변해주었다.

우리 원수님의 정치는 절세의 위인들의 천재성이 집대성되어 있는 가장 세련되고 완벽한 정치이며 그것은 위대한 조선의 힘이라고 승리의 선언한 정론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의 구절에는 천만군민의 심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비껴왔다.

어머 수명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이어가시며 내 조국의 기상과 위용을 세상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명도는 곧 조선의 승리이며 오늘의 비약하는 현실은 그것을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백승성은 정론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역세계 나아가는 우리 전체 청년학생들의 사상과 신념, 배양과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언제나 당의 사상으로 심장을 활활 불태워주고 온몸에 백두산같은 힘이 용솟음치게 하는 이런 글을 사랑하며 이런 글에서 큰 힘을 얻는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따르던 만드시 승리한다는 사상이 팽배 율려나오는 여가도 정론이 그대로 우리 심장의 윤리로 단정되고 그것을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내 조국의 국력이 나날이 강해지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상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의 모습, 조선의 본래를 온 세상에 과시한 것이어야말로 혁명의 원수들을 모란듯이 쳐잡긴 위대한 사상의 포화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런 훌륭한 굴복판을 더없이 사랑하고 있으며 미래의 바근해태를 비웃는 혁명의 원수들은 이런 굴복판들을 무엇보다도 무시워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다.

《백사상 그 어느 당과 인민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과도 협박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는 과정에 우리 당은 자기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에 대하여 깊이 확신하게 되었으며 당을 따라 영령히 주체의 관철로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각오와 의지는 더욱 굳어졌습니디다.》

지난 9월 26일부터 《로동신문》에 실린 정론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는 위대한 당의 철통같이 세기를 이어오는 주체혁명위업의 필승불패성과 천만군민의 운명의 태양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공로를 전신하에 보여

줌으로써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을 배태해주고 있으며 우리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정론은 또한 우리의 위업을 달성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꾀변의 반동성을 날날이 까발리고 정로도 승리도 우리에게 있다는 철리를 밝힌것으로 하여 적대세력에게 들뜨게하는 위대한 굴복판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전파위부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이 현재 벌어지고있는 때에 나온 정론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는 지금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거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는 우리 조국의 강국의 위용과 기상을 어찌나 방불하게, 그러면서도 비늘붙어갈 구멍도 없이 제인 논리로 소리를 구가하였는지 한문장, 한문장을 무심히 볼수가 없었다.

정말이요 승리는 언제나 조선의 것이었고 승리는 언제나 제국주의의 것이었다.

합일의 그날 일제를 통해 하게 라승한것도, 3년간의 전쟁에서 거머쥐고 제국주의의 종국적 멸망을 겪을것을 통해하게 선언 하였었다.

당보에서 정말 시기적절할 때에 가슴후련한 갈대보를 쓰았다. 200일전투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에게 수천의 식량에도 미할수 없는 위대한 사상정신적 양식을 안겨준 당보집판에 우리 동지대원들의 활달한 마음을 담아서 열렬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의 승리는 언제나 원수님께서 계시는 조국 땅 북녘에서로 반드시 전파위부의 세 기적이 펼쳐나고야마겠는 두철한 신념을 간직하고 맑은 공사에서 헌신 위훈을 펼쳐나갔다.

대외간섭지도자 운동자 양을은 지난 9월 26일 《로동신문》 2면에 실린 정론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를 읽고 격조있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정론을 읽는 순간부터 투쟁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원수들의 악랄한 도전을 헤쳐가 왔는지, 하지만 어떤 력사의 도전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명도는 곧 조선의 승리라는 불변의 진리, 우리모두가 미치고 싶었던 진리의 교배를 가슴후련히 대변해주었다.

우리 원수님의 정치는 절세의 위인들의 천재성이 집대성되어 있는 가장 세련되고 완벽한 정치이며 그것은 위대한 조선의 힘이라고 승리의 선언한 정론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의 구절에는 천만군민의 심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비껴왔다.

어머 수명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이어가시며 내 조국의 기상과 위용을 세상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명도는 곧 조선의 승리이며 오늘의 비약하는 현실은 그것을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내 조국의 국력이 나날이 강해지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상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의 모습, 조선의 본래를 온 세상에 과시한 것이어야말로 혁명의 원수들을 모란듯이 쳐잡긴 위대한 사상의 포화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런 훌륭한 굴복판을 더없이 사랑하고 있으며 미래의 바근해태를 비웃는 혁명의 원수들은 이런 굴복판들을 무엇보다도 무시워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백승성은 정론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역세계 나아가는 우리 전체 청년학생들의 사상과 신념, 배양과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언제나 당의 사상으로 심장을 활활 불태워주고 온몸에 백두산같은 힘이 용솟음치게 하는 이런 글을 사랑하며 이런 글에서 큰 힘을 얻는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따르던 만드시 승리한다는 사상이 팽배 율려나오는 여가도 정론이 그대로 우리 심장의 윤리로 단정되고 그것을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내 조국의 국력이 나날이 강해지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상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의 모습, 조선의 본래를 온 세상에 과시한 것이어야말로 혁명의 원수들을 모란듯이 쳐잡긴 위대한 사상의 포화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런 훌륭한 굴복판을 더없이 사랑하고 있으며 미래의 바근해태를 비웃는 혁명의 원수들은 이런 굴복판들을 무엇보다도 무시워하고 있다.

날을 따라 고조되는 지원열풍

모든 힘을 합쳐도 북부리해복구전투에 총동원, 총집중할 때 대한 당의 전투적소속을 높이 받들고 정주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피폐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뛰어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다.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의견을 자주주며 인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합쳐도 북부리해복구전투에 모든 당의 전투적소속을 높이 받들고 정주시당위원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돌풍과 무더기비로 대대앙을 당하고 한지에 나앉은 피폐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사업에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설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일군들에게 전달한 후 시당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어찌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 돕고 이 끌어주는것은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입니다. 피폐지역 인민들을 진정해, 친혈육처럼 여기고 도와주는데 우리 일군들부터 앞장설 습니다.》

낮으나 절한 그의 맑은 힘의 지원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시당위원회일군들과 시인의 기쁜, 기쁨소, 풍정, 협동농장, 근교단체일군들은 조직정치사업을 근교단체에서 일제를 메고 대중을 이끌어내었다.

책임일군을 비롯한 시당위원회 일군들은 가정들에서 마련한 많은 자금과 담요, 양복, 내의, 장화 등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남편 지원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를 물어 위

북부전선에 보낼 약품생산에서 혁신

평 천 고 려 약 공 장 에 서

일 잘하는 단위로 전국에 소문이 난 평천고려약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북부리해지역 인민들에게 보내줄 고려약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들은 전당, 전군, 전민을 북부리해복구전선으로 부른 당의 전투적소속을 높이 받들고 철야전투를 벌여 짧은 기간에 8천여 원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을 다하여 북부전선으로 탄원해나가고있다.

시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는 모두다 한철한 신사들이고 하면서 피폐지역 인민들의 마음을 지기 아릅답고 여기고 성심성의도 도와주기 위한 지원사업을 세차게 벌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수없이 펼쳐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뛰어나가고있습니다.》

뜻깊은 올해 풍성에서는 년간 계획을 7월에 넘쳐 수행한것이 자랑이다.

평천고려약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북부리해지역 인민들에게 보내줄 고려약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들은 전당, 전군, 전민을 북부리해복구전선으로 부른 당의 전투적소속을 높이 받들고 철야전투를 벌여 짧은 기간에 8천여 원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을 다하여 북부전선으로 탄원해나가고있다.

시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는 모두다 한철한 신사들이고 하면서 피폐지역 인민들의 마음을 지기 아릅답고 여기고 성심성의도 도와주기 위한 지원사업을 세차게 벌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수없이 펼쳐나고있다.

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폐막

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폐막되었다.

폐막식이 28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장희태부총리와 판매부 일군들, 교원, 연구사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여러 나라의 국제기구, 해외 동포 대표단, 대표들과 주요 고대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전람회에 출품

제14차 전국조선옷전시회 개막

제14차 전국조선옷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민족옷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회에는 최복공예품의 공예품과 현대양복의 기술자, 기능공들, 내명원들이 만든 일삼옷, 명절옷, 집안옷, 어린이옷을 비롯하여 남, 녀조선옷과 계절옷 1100여점이 출품되었다.》

개막식이 28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최일룡 부위원장 조영철로동당 부위원장 김경남당서기, 박은남문화상과 관계부, 출판부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내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조영철로동당 부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민족문화발전이 길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참가자들이 28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사주위위업수행에 대한 열정을 다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만경대기념공원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기념공원을 기념하여 사전을 적었다.

최모드 보가모드 로씨야과학원 원동분원대표단 단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체시대의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었다. 그의 일가분들은 어려운 살림속에서도 깨끗한 나라를 찾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고 말했다.

이러나 말렌코 아일렌드조선

2016년 《싸브라리》 국제수중 체조무용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우리 선수들 귀국

2016년 《싸브라리》국제수중체조무용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우리 선수들이 귀국하였다.

이들 잘 실행으로써 각각 1위를 하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한경명, 김진주선수들은 청소년급 2인경기, 민해연, 장현우선수들은 청년급 2인경기 출전하여 높은 불만지세에서 세계적인 난도동작들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평양에서 관계부 일군들, 가족들이 선수, 감독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어머니조국에 우승의 메달을 안고온 선수들을 축하하며 축하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의 핵강국의 승리적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에 민감한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조선반도정세를 엄중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은 판도 연타수공군기지에서 완전무장한 핵전략폭격기(B-1B)를 남조선군사분계선지역상공으로 왕복비행시키면서 핵폭탄투하연습을 벌인다. 오산미공군기지에 착륙, 전개시킨다 여했다 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다. 미군부우두머리들은 앞으로 저들의 전략자산들이 현수 조선반도에 과전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다. 실제 세상으로는 《로널드 레이건》호태항포함라프락이다 조선반도에 핵우기를 기동하고있고 수중에서는 핵동력잠수함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제의 사측을 받은 남조선피해자들 하부강까지 범부수준을 모른다는 것으로 높아지고 있다. 《북수뇌부 직접공격》을 위한 《함수작전》과 《평양초포격》을 통한 특수작전무력과 각종 정밀타격기싸움들을 전선터에 진입시킨다 여했다 하고 덩달아 적기를 부리고 있다. 호전공들은 가소유체도 저들의 군사적양동이 우리에게 대한 위협사위인 동시에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것이라는 경고》라느니, 《북도우두머리 대한 군사적압박도수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위협대고 있다. 한편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거덜이 난 세계복을 오만산세 두드려대고 있다.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국면에 몰아가는 어지러운 광풍에 국제사회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달려들어오지 않는 한 눈길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망동을 제 죽을 줄 모르고 헤쳐나가는 우유원자들의 추태로밖에 보지 않는다.

미국호전세력들은 새 세기에 핵전쟁 전략, 힘의 정책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포괄적으로 책동하였다. 엄혹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생존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원수들의 가증되는 핵전쟁 책동에 부득불 핵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핵보유국이 될수록 국력은 비할없이 강해졌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수 없게 되었다. 핵억제력을 갖추었기에 우리 인민은 미제의 악랄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핵을 가지고 버티는 난관을 시련을 과감히 뚫고 전진해나갈 수 있다.

오늘의 형편한 조선반도정세에서 우리 인민이 짚은 골짜기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짚은 골짜기이다. 핵전쟁을 모시게 못하게 하는 힘은 인민의 단결과 자주의 힘이다. 《무기안보》에 붙잡힌 미국은 남조선에 전략자산들을 현수 들어밀어 우리를 놀래워려고 하고있던 적들을 격퇴하고 있다. 우리 인민이 이 나라, 우리의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선택한 지주, 선군, 사회주의 확고히 확립되고 있다.

눈뜨 소경, 열린 귀머거리들의 무분별한 망동

일본반동들의 만용변란담소들이 국도에 달하고 있다. 이제는 우익장세들이 수습대의 방종차질을 통원하여 《총련을 일본에서 내쫓겠다》고 고사하며 만용을 부리고 있다. 그들은 절연이던 이대당이 이국어를 방랑하는 총련인들을 데인 일본제국금지영역을 확대한 다, 총련연호조를 강화한다 하며 붙맞은 송덩이랑 남뛰고 있다.

비디건너 십나라에서 광란적으로 일고있는 제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소통은 단순히 총련을 눈에 든 가시처럼 어겨며 때리며 퍼붓는 일본반동들의 병적인 악습의 발현이라고만 볼 수 없다. 이것은 칠부칠이 병적인 거지아빠 남도 승승장구하는 주체조선의 무적막강한 승리열에 기결초창관사들의 분별을 잃은 망동이다.

라디오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사변들이 펼쳐질 때마다 그것을 터무니없이 절고들면서 총련을 만용화국인양행동하는 주체는 과녁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이 울린 지주의 핵억제, 평화적인 위상발사를 편견하고 그 무슨 《탄핵제》, 《국제적합법공조나방을 붙이는데 앞장서서 설비발을 치는것이 다름아닌 일에서, 우위를 그림알살하기 위해 고안해낸 무수한 짓거리들이 백을 지지 못하게 되자 일본당국은 비열하게도 총련과 제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에 피눈이 되어 남뛰고 있다.

총련연호조의 주극방물을 찬란하고 제일조선연호조의 배후의 천리마처럼 무함치 깎는 인련유민행동을 서슴치 않고있다. 지난 4월 규슈의 구마모도 지방에서 자연적인 지각변동에 의하여

제재는 조선의 자강력을 더욱 강화해줄 뿐이다

제재는 조선의 자강력을 더욱 강화해줄 뿐이다 영국인사 글 발표

주체의 핵강국의 위용을 과시한 핵탄두발사행사를 지지하며 영국연군정권연구원을 위한정기 후원금 모트 하드슨이 신문 《더 뉴키》 23일부에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탄두발사행사를 단행하였다. 세계 진보적인인들은 조선의 핵탄두발사행사를 열렬히 축하하고 있다. 이번 시험은 핵보유국으로서 조선의 위용을 다시 한번 일깨워 과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조선 핵보유국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진보적인인들은 조선의 핵탄두발사행사를 열렬히 축하하고 있다. 이번 시험은 핵보유국으로서 조선의 위용을 다시 한번 일깨워 과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조선 핵보유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시험은 핵보유국으로서 조선의 위용을 다시 한번 일깨워 과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조선 핵보유국을 위협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주요 국제 회의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이 표시된것과 관련하여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주요 국제 회의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이 표시된것과 관련하여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더 큰 재난을 몰아오는 보수패당의 재집권소동

더 큰 재난을 몰아오는 보수패당의 재집권소동

파국상태에 빠뜨린 피피보수패당은 재집권이 아니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정치무대에 서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파국상태에 빠뜨린 피피보수패당은 재집권이 아니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정치무대에 서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